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모든 건축물들이 산뜻하고 멋있으며 주변환경이 깨끗하다고, 품을 많이 들인것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도시민들을 공해가 없는 도시에서 문명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하여 수도의 무궤도전차화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리워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이 창립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여러 차례의 현지지도를 받았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산고급중학교 시절에 몸소 생산실습을 진행하신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자랑스러운 발전행로를 걸어왔으며 여러가지 형의 무궤도전차를 생산하여 수도의 려객수송문제를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1972년 5월 《천리마-72》형무궤도전차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1990년 4월 대형버스 《광복소년》호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바라보느라니 수도의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온다고 말씀하시였다.



차공장에서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 수도시민들이 리용하게 하는것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인 동시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 대한 개건현대화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려객운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산업시설맛이 나게 꾸리는데 만족하지 말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더욱 완벽하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땀방울이 스며여있고 인민사랑의 체취가 어리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공직장, 전동기직장, 전차조립직장, 대수리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현대화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보시였다.

무궤도전차들에 오르시여 성능과 의장품의 질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우리 로동

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어려웠는지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불수록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타고 출퇴근길에 오를 수도 시민들의 밝은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무궤도전차에 대한 설계와 도안을 더 잘하고 마크도 특색있게 만들며 도장을 문화성있게 할뿐만아니라 의장품 하나하나를 인민들이 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잘 만듦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무궤도전차가 수도 평양의 얼굴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무궤도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세계적수준의 무궤도전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는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이 진행해야 할 2단계 개건현대화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에 도전하며 세계를 앞서나가겠다는 야심을 안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이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천출명장을 모시여 빛나는 무적강군의 70년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이 성스러운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70년이 되어오고있다.

민족의 력사 반만년에 비해 보면 건군 70년은 너무도 짧은 기간이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70년간에 조선인민군은 보충으로부터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을 가진 행성의 무시할수 없는 강군으로 자라나 조국과 민족을 철옹성같이 수호하고있다. 하기에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70년은 승리와 영광넘친 70년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

해방후 조선인민앞에는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하여야 할 일은 많았지만 제일 급선무의 하나는 현대적인 자위적무력을 가지는것이였다. 군사문제 해결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였다. 더우기 외세가 강토의 절반을 강점하고 전 조선을 강탈하려고 획책하고있는 엄중한 정세는 정규군대창설을 더는 미룰수 없는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고있었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나라안팎의 조성된 정세를 꿰뚫어보시고 나라와 민족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자주와 민족과 배짱으로 정규적무력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러나 일제가 모든것을 파괴하였고 국고는 텅 빈 상태

에서 정규화된 군대를 조직하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항일대전시기에 마련된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 해방된 조선인민의 양양된 건국열의가 있는 한 능히 자체의 힘으로 정규군을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헌신적인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평양학원, 중앙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소를 비롯한 각종 군사교육기관들이 창설되게 되였다. 하여 능력있는 군사정치지휘관들이 양성되고 항공공대, 수상보안대, 포병, 탱크병, 공병, 통신병을 비롯한 정규화적면모를 갖춘 군종, 병종부대들이 조직되어 현대적정규무력건설의 튼튼한 기틀이 마련되게 되였다.

총대의 위력은 강력한 국방공업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업의 기초도 매우 약하고 병기공업의 토대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병기공업이 창설되게 되였다.

현대군건설사의 갈피에는 조선에서처럼 정규무력건설을 위하여 료해공군건설과 자립적국방공업건설이 동시에 추진된

례는 없었다. 마침내 주제37(1948)년 2월 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참석밑에 평양에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킨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알리는 성대한 열병식이 거행되게 되였다.

그날은 절세의 애국자이며 탁월한 군사의 영재,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랜 세월 참다운 민족의 군대를 갈망하던 우리 겨레의 숙원이 실현된 력사적사건의 날이였다. 지금도 건군의 그날 총검을 비껴들고 입김을 날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한 인민군대의 열병식 광경이 생동한 화폭으로 전해지고있다.

당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목격하신 사람들이 쓴 회상록 《조선, 분렬과 전쟁, 통일》에는 이렇게 씌여져있다.

《김일성장군께서는 해방후 정규무력건설방침을 제시하시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시였다. 인민무력조직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신 그분의 전략적로선이 실현되어 1948년 2월 8일 조선 국가의 정규적무장력의 첫 열병식이 있었다.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어 조선인민은 정규화된 현대적인 민족군대,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의 믿음직한 담보

를 다져나가게 되었다.》
그처럼 소원하던 인민군대 창건으로 조선인민은 피눈물나던 지난날의 망국민의 쓰라린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운명과 자주권을 지킬수 있는 군사적담보를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 력사의 날이 있어 조선인민은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포악무도한 미국강도배들을 타승하고 7.27의 전승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미국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년대를 이어 미국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위대한 주석님의 건군위업과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즐기차게 이어지게 되었다.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총대의 강약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국건설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장정을 이으시며 인민군대를 최정예화

된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그이의 불멸의 공적은 인민군대가 승승장구하여온 70년과 더불어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대를 이어 령장복, 최고사령관복을 타고난 조선인민군의 력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무비의 지략과 담력,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인민군대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어떠한 침략세력도 단매에 제압할수 있는 최정예강군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게 되었다.

강위력한 핵보검으로 폭제의 핵을 마스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시려는 확고한 결심을 지니신 위대한 령장의 전략적구상과 비상한 결심, 확고한 의지에 의하여 병진로선이 제시되고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인민군대의 최전방초소들과 포연 전투훈련장들,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에 걸철한 반제자주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

를 위하여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건군의 첫 기슭에서 울린 기관단총의 총성의 메아리가 장쾌한 수소탄폭음으로 이어지고 인민군대는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공화국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종당에는 5련발총과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려든 침략세력에게 짓눌리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야 하였던 조선민족이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여 이제는 외세의 침략과 핵위협공갈에 영원한 중지부를 찍게 되었다.

세상에는 이름을 남긴 장군들이 많았지만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비범한 지략,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군령도의 전나날에 백승의 전통과 기적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령장의 출중한 품격과 자질을 가진 장군들은 없다.

인민군대의 빛나는 70년 력사는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강군이 있고 강국이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뜻깊게 새겨주고있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떨치며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억척으로 담보할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군사를 흘시하면 나라가 망한다

조선인민군창건이 선포된 70년전 2월 8일의 밤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댁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민족사에 길이 빛날 건군위업을 실현하신 주석님께서서는 감개무량함이 이를데 없고 감회가 크시였다. 수많은 혁명동지들의 피의 대가로, 성실하고 근면한 인민과 그 아들딸들의 애국충정에 의하여 이룩된 력사적위업이였다.

그날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5천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던 우리 나라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먹거리고만것은 봉건통치배들이 군사를 키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을 게을리하였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국사중의 국사를 놓쳤기때문이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진정으로 나라와 인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군사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석님의 말씀을 신중히 들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 제일 큰 일이라는것을 알았다고, 이것을 놓치면 우리 나라는 없어진다고 힘차게 말씀올리시였다.

아드님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과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녀사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남북대표들의 탄복

주제37(1948)년 5월 1일 평양에서는 군중대회와 함께 조선인민군 열병식이 있었다.

그날 행사에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남조선대표들도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다. 행사를 앞두고 대표들중의 한사람이 문득 위대한 주석님께 인민군대지휘관들은 다 있는가고 말씀올리였다. 그것은 나라가 해방되지 불과 두해 남짓하고 군대가 창건된지는 3개월도 안되는데 정규군에 필요한 지휘관문제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때문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그에게 우리 인민군대는 민주조선의 정규군으로 창건된지는 이제 겨우 석달밖에 안되지만 오랜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고, 우리는 이 력사적뿌리에 기초하여 인민군대의 간부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가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 건설된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였던 남조선대표들은 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키우신 사람들을 인민군대지휘관으로 내세우신것은 매우 현명한 방침이며 이런 군대를 가진 우리 민족은 다시는 망국의 길을 걷지 않을것이라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최정예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조선인민군

지난 70년간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서 혁명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나라를 지키는것은 군대의 사명이요 본분이다.

인류력사에는 군대가 자기 나라와 령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인민이 참혹한 재난을 당한 실례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총대가 약하면 국가가 수난당하고 인민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것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국제관계의 힘의 법칙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서의 비참한 현실도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동안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가장 횡포무도한 외세는 미국이였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진 미국, 한해에 주요 군사대국들의 군사비를 합친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비를 탕진하며 군사력

증강과 전쟁책동에 미쳐달뛰는 악의 제국, 그 미국은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도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시종일관 매달리며 갖은 군사적도발과 위협소동을 벌려왔다.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다고 우쭐떨거리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온 미국과 맞서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제도와 인민을 굳건히 지켜올수 있는것은 천출명장의 지휘를 받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기때문이다.

세인이 보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도 조선인민군은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군대였지만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 영웅적으로 싸워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국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패배를 안기고 전승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전후에도 미군은 남조선에 계속 등지를 들고있어 새 전쟁

도발을 위한 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왔다. 그때마다 미국의 도발소동을 짓몽개고 기를 꺾어놓은것은 영웅한 조선인민군이였다.

1960년대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80년대의 포미대결전,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총포성없는 조미핵대결전을 비롯하여 미국과의 모든 군사적대결마다에서 인민군대는 언제나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안녕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는데서도 언제나 선봉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이것이 조선의 군대가 높이 내세워온 애국애민의 구호이다.

조선인민군은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 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사에 뚜렷

한 자욱을 새겨왔다. 비날론생산기지를 비롯한 거창한 창조물들, 서해의 날바다를 가로막은 대규모의 갑문건설과 거창한 토지정리, 새 거리건설들을 비롯하여 이 땅위에 펼쳐진 창조와 건설의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인민군인들이 기울인 무수한 헌신의 땀이 깃들여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우리 군대》, 《인민의 군대》로 자랑하며 인민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의 웅대한 부강조국건설구상은 곧 인민군대의 투쟁목표이며 인민의 리상은 곧 인민군대의 리상으로 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올해에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신화창조의 선구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래를 남김없이 떨치게 될것이다.

신창욱



교육사업을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의 하나이다. 교육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교육에 적지 않은 힘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처럼 령도자의 구체적인 지도와 깊은 관심속에 교육이 중시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얼마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도 교육사업을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과 선견지명의 탁월한 령도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2월 평양교원대학을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대학으로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평양교원대학은 지난 기간 여

러가지 전자교양자료들과 교육지원프로그램, 학생들의 자립적사고활동에 기본을 두고 과학적으로 강의를 할수 있는 교육에첨기술을 개발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전공실천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과 장서능력이 크고 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를 열람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부터 강의도 받을수 있게 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었다.

이렇게 대학을 온 나라가 따라배울 본보기대학으로 꾸려주시고 뜻깊은 이혜의 1월에는 몸소 대학을 현지지도하여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날 그이께서는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 자연실험교수수법실, 어린이지능개발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

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강의도 주의깊게 들어주시며 새롭고 특색있는 교수방법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대학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 같고 금방석을 마련해준것 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원대한 구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나라의 문명은 교육수준

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수 있게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후대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조국을 떠메고나갈 앞날의 주인공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신 이야기며 아이들과 하신 약속을 지켜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평양유아원과 애육원을 찾아 원아들과 설을 함께 쇠신 이야기...

그이께서는 각 지방들에 원아들을 위한 유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초등학교, 중등학교건설도 발기하시고 평양중등학교원형성안도 몸소 지도하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이의 높은 뜻이 현실로 펼쳐져 공화국의 각 도들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새로 일떠서고 전사회적으로 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났다.

2년전 7월 새로 건설된 평양중등학교를 현지지도하시고 원아들에게 몇쟁이학원을 안겨주게 되니 얼마나 기쁘지 모를것이고, 원아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을 또 하나 풀게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이의 모습은 온 나라 아이들의 교육을 돌아 원아들과 설을 함께 쇠신 그이의 은정속에 오늘 공화

국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며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으며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나고있다.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교육의 질이 높아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다. 그러럼 후대들을 사랑하시고 후대교육을 중시하시기에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양성의 원동장인 교원대학들을 중시하시고 평양교원대학을 품을 넣어 개건현대화하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실력이 높은 교원들이 배워주는 학생들속에서 나라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쟁쟁한 역군들이 배출된다고 하시며 교육자들의 자질향상문제를 그토록 관심하시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교육중시정책에 떠받들려 공화국은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며 무궁번영할 강성조선의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교육자의 한없는 긍지

제가 과학연구사업에서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저의 공로이기 전에 우리 교육자, 연구자 한사람한사람을 금싸래기처럼 여기시며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의 열매이다.

우리 나라 교육과학을 하루 빨리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현실에 구현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교양프로그램들과 전자교양자료들, 교육지원프로그램들, 교육과학행정관리체계를 자체로 개발도입하고 모든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후대교육을 그토록 중시하시는 절세위인을 모시여 우리 교

육자들의 존엄과 긍지도 있고 주체교육의 더욱 밝은 미래도 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보온 오늘의 이 영광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미래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보람찬 이 교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가겠다.

평양교원대학 교원 박제혁



행복한 우리 대학생들

그날 우리는 교실에서 실기연습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우리모두는 꿈만 같은 감격과 행복의 무아경에 휩싸이게 되었다.

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들의 교실에도 들리시었던것이다. 너무도 뜻밖에도 그이를 뵈옵는 순간 우리는 만세를 웨치며 달려가 그이의 옷자락에 매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수수한 학생의자에 앉으시여 제가

출현하는 가상강의를 주의깊게 보여주시었다. 누구라 할것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뵈고싶어하는것을 소원하는데 저는 그이를 몸가가이에서 뵈옵고 강의도 보여드렸으니 정말 꿈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그뿐이 아니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학의 선생님들과 함께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우리들을 부르시여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으니 이 영광, 이 기쁨을 무슨 말

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정말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배움의 나라를 활짝 꽃피워가는 우리 조선의 대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대학생들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이께서 바라시는 미래의 역군들을 키워내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배우겠다.

평양교원대학 학생 리은주



민족자주의 원칙에 확고히 서야

얼마전에 있는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일 드높은 의지를 안고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에 밝혀져있는 것처럼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셔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힘차게 열어 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이미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할것은 온 민족앞에 확약하였다. 북과 남은 지난 세기 70년대에 역사적인 7.4공

동성명을 통하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자주 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의 발표로 온 겨레는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서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 근본핵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담은 우리민족끼리리념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외세가 아니라 북과 남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6.15공동선언에 이어 발표된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함으로써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북남선언들의 발표이후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민족자주의 원칙,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설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으며 북과 남이 의

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 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민족분렬의 원흉인 미국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 위기를 못마땅해하며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판도에 핵전략폭격기들을 편이여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집결시키고있으며 미국본토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비밀특수작전준비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공화국의 주동적인 제의와 조치로 북남사이에 화해의 훈풍이 부는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쟁기를 치고 정세를 다시 악화시키려고 갖은 비렬한 책동을 다하고있다.

리 현실은 민족자주의 리념,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외면하고 외세에 아부굴종하게 되면 초래될것은 북남관계악화와 충돌과 전쟁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전체 조선민족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히 짓부셔버림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나가야 할것이다.

송명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호소문에 지적되어있는바와 같이 북과 남은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고 민족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의미있는 출발을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는것은 시대와 민족사의 엄숙한 명령이다.

우리 겨레는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온 겨레가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한다.

지난 6.15시대에 우리 겨레는 민족적화해와 단결의 격동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적화해와 협력의 대화가 도도히 굽이치는 속으로 동자, 농민, 청년학생, 학자,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할것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섰다. 당국과 민간이 따로없이 사상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사이에 진행된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 민족공동

의 통일행사들은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고조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이 민족화해의 환희, 통일애국의 열풍이 차고넘쳤던 6.15시대처럼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늘길, 배길, 땅길로 자유롭게 오가며 혈육의 정을 잇고 화해단합의 대세를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

올해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의 정신을 고수하고 이 대회를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고 전민족적통일운동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한다.

해내외의 각 정당별, 계층별, 부문별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협력교류를 적극화하여 통일분위기를 고조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는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누는 동족사이의 관계, 함께 통일로 가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이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겨레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 없다.

단결은 민족의 힘이며 민족대단결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지역, 정견과 신앙,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들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를 실현하고 통일현실적요구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대범한 용단과 주동적인 조치들에 의해 북남관계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있는 지금 이를 달가와하지 않는 남조선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온 겨레는 북남관계개선훈풍에 찬물을 끼얹고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는 대결세력의 망동에 준엄한 철추를 가하며 민

족적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적, 제도적장치를 제거하고 적대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야 할 때이다.

민족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한다면 해결 못할 일이 없으며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

진정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이라는것이 공화국의 일관된 립장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뜻깊은 올해의 여러 계기들에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개최함으로써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만방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신기복

전쟁의 화기를 들이내야 한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전성철과 나눈 대담 —

기자 :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에서 발표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온 겨레를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전성철 : 그렇다.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동결상태에 있던 북남관계에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고 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있는 이때에 호소문이 발표된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깊다고 해야 할것이다.

기자 : 호소문에도 밝혀져있는 것처럼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전성철 : 옳은 말이다. 조선반도에 호르고있는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야말로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평화를 해치는 위협요인이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새없이 벌어지는 대규모합동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를 기대할수가 없다.

기자 : 북남대화의 문이 열리고 민족의 증대사들이

진지하게 론의되고있는 오늘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주변에 또다시 기여들고있다.

전성철 : 미국이 지금 조선반도주변에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들이밀고있는것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고 정세를 또다시 전쟁적경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행위이다.

미국은 장장 70년간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반통일전쟁세력이다. 미국은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로 온 겨레가 자주통일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희망에 넘쳐있을 때에도 분렬주의적인 《교차승인론》을 들고나와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여러 차례의 대화가 진행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자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것으로 제동을 걸었으며 1990년대초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을 때에는 《북핵위기》를 조성하여 정세를 긴장적화애로 몰아갔다.

기자 : 미국의 방해책동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발표되고 북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이 도래한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로골화되지 않았는가.

전성철 :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내외의 폭풍같은 지지찬동을 불러일으키게 되자 미국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리해관계를 지키는것이 우선이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사전에 자들의 승인을 받으라고 강박하였다. 뿐만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해 북남사이에 진행되는 각종 대화와 협상, 협력과 교류사

업에 대해 《그냥 두어서는 안될 심각한 사태》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제동을 건것도 잘 알려져있다. 오늘 미국이 조선반도의 화해흐름을 못마땅해하며 서대결의 빔장을 다시 치지 못해 안타아하는것도 북남관계개선과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속심과 정체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으며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다. 전민족적인 반미성정으로 전쟁의 화군을 밀뿌리쳐 들어내는것이 민족의 안전과 이땅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기자 : 감사하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담화 발표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1월 27일 온 민족이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대한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연합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새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휘황한 길을 따라 그토록 첨예했던 조선반도 정세가 급격히 전환되고 악화일로로 치달아온 북남관계가 단 며칠사이에 면모를 달리하고있는 오늘 현실앞에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온 겨레와 더불어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의지로 가슴끓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 공화국 정부, 정당, 단

체연합회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갈때 대한 호소문을 채택, 발표하였다고 담화는 밝혔다.

호소문에는 절세의 위인께서 신년사에서 그 어수신 가장 정확하고 선견지명한 리정표따라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고야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 불같은 결의가 맥박치고있다고 담화는 격찬하였다.

담화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련합회의의 4가

지 호소에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첫걸음을 자주통일위업수행의 획기적전진으로 이어가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집대성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북남관계대전환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갈수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승리의 신심을 안고 련견지명한 리정표따라 올해를 조국통일사에 영원히 빛날 대전환, 대사변의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고야말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 불같은 결의가 맥박치고있다고 담화는 격찬하였다.

담화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련합회의의 4가

놓고 밝은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통일애국운동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절세위인의 자주통일사상과 로선을 애국애족의 열정과 의지로 관철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오늘과 같이 격동적이며 력사적인 시기에 각계각층의 재일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의 굳센 통일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 제2의 6.15시대를 안아오며 통일되고 강성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장엄한 거족적통일운동에 힘있게 떨쳐나설것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랑하는 조국

땅에 핵재앙을 몰아오는 위협천만만 북침전쟁연습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반미성전에 적극 합세할것이다.

또한 추악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으로 북남관계개선훈풍에 찬물을 끼얹는 남조선보수세력의 망동과 민족의 대사를 파괴하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반대규탄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녘동포들의 정의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할것이다.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실현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온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력사적인 남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개최된지 일흔이 되는 뜻깊은 올해 북과 남, 해외의 련대련합을 강화하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과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는데 특색있게 기여할것이다.

본사기자

시론

평창올림픽을 왜 《평양올림픽》이라고 비꼬는가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있다. 온 겨레와 세인은 이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것을 바라고있다. 특히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로 이 대회가 더욱 의의깊게 되었다고 하면서 북남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있다.

그런데도 실심바르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세력들과 보수언론들은 민족의 이 화해노력을 깎아내리고 파탄시켜보려고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양올림픽》으로 되게 되었다며 아무 재가를 치고있다.

평창에서 진행되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어떻게 《평양올림픽》으로 될수 있는가.

경기대회의 장소도 남강원도의 평창이고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선수단들이 비행기와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도 평양이 아닌 평창이다.

경기대회가 평창에서 잘 진행되면 평창이 빛이 나고 남조선에도 득이 됨은 너무도 당연한 리

치이다. 《올림픽특수》를 누리키는 곳은 평양이 아닌 바로 평창인것이다.

평창과 남조선에서 이렇게 일이 잘되게 하려고 북이 보내는 것이 선수단이고 응원단, 예술단이다.

잔치집에 남도 아닌 제 혈육이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못할망정 내가 와서 우리 집잔치가 너희 집잔치로 되게 되었다고 말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북남이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세계가 보는 경기장에 선수단 공동입장을 하고 단일팀도 무어 출전하면 민족의 화해에도 좋고 세계에 조선민족의 단합의지, 통일열망을 보여주어서 또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단합의지를 과시하는것이 평양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되는가.

2014년 인천에서 진행된 아시아경기대회때에도 공화국의 대규모선수단이 참가하고 고위급 대표단이 현지에 가서 경기를 보았지만 누구도 이 경기대회가 《평양아시아경기대회》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있던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때에는 저들의 치적을 쌓기 위해 북선수단과 응원단을 비행기로 데려오자, 북응원단초청협상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법석대고 경기장에서 북선수들을 응원까지 하였으나 지금은 태도를 180° 돌변하여 북의 예술단과 응원단을 헐뜯고있다. 이러한 추태야말로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것과 같은것이라고 신랄히 야유조소하고있다.

피를 나눈 동족이 도와주려고 하는 제 집잔치를 심보사나운자들이 소동을 피우며 시작전부터 망쳐놓고있다. 홍준표와 같은 보수패거리들이 과연 남조선에서 그 땅의 공기를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맞긴 맞는가.

민족에게 백해무익하고 남조선 내부에서도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이따위 대결병환자들은 제거해야 마땅하다.

허성철

《북의 체제전진장》—황남무계학 남두리

북과 남이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관계개선의 발걸음을 맞추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배척을 당하고있는 보수세력들은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갖은 비렬한 훼방질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올림픽무대가 《북의 체제전진장》으로 되고있다는 황당한 녀두리이다. 이에 남조선의 보수언론들도 합세하여 법석떠들어대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경기대회를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성과적으로 개최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고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기려는 진지한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순수한 노력을 《체제전진》이라고 헐뜯어대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해나가는것을 바라지 않는자들의 속이 뒤틀

린 너절한 잡소리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는 국제적인 대규모체육회합이며 공화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성원국이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였다. 하다면 공화국이 참가한 경기를 주최한 나라들도 모두 공화국의 《체제전진장》으로 되겠다는것인데 말이 되는가. 응원단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무대에 자기 나라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보내는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심리이고 관례이다. 인기있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와 기차, 배를 타고 경기개최국에 가서 자기 나라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남조선에서 진행될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도 많은 나라의 응원단들이 참가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들이 평창올림픽을 자기의 《체제전진장》

으로 만들려고 참가하는가.

누가 하면 일없고 누가 하는것은 불순하다고 하는것이야말로 동족대결의 비뚤어진 사고가 낳은것이고 그자체가 신성한 올림픽을 자기들의 정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용서 못할 행위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을 파견하게 되는것도 북과 남의 합의사항으로서 민족적대사를 더욱 흥성있게 하는 좋은 일이지 그것이 어떻게 《체제전진》을 위한것으로 된단 말인가. 지난 시기 남조선의 예술인들도 평양에 와서 공연을 하였지만 그때 남조선이 《체제전진》을 한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한마디로 《북의 체제전진장》 녀두리는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마구 지어 내뱉는 궤변중의 궤변이다.

리성이 있고 민족적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역스러운 궤변에 침을 뱉을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체육무대에 전쟁의 봉화를 지피려는가

미국이 조선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중앙정보국, 의회의 고위인물들을 련일 내세워 《조선반도문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대북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올림픽이 북의 체제전진장으로 되게 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고아대고있는가 하면 독자적인 대조선주 가제재를 발표한데 이어 얼마전에 미재무성 차관을 남조선에게 보내여 남조선당국에 《대북제재에서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방쿠버 외 상회의》와 《〈한〉미외교국방 확장역제전략협의체 고위급회의》, 《〈한〉미국방장관회담》 등의 모의관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남조선당국에게 《북남대화

를 비핵화대화화로 끌고야 한다.》고 오금을 박고있다. 또한 남조선미국 합동군사연습을 《올림픽 이후 즉각 재개할것》이라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일본항공 《자위대》와 공동으로 공화국을 겨냥한 비행대타격훈련을 벌려놓으면서 호전적광기를 부리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당황망조하여 그것을 흐려놓으려고 더욱 발광하고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이다.

둘이켜보면 민족의 분열을 극복하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우리 겨레의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지난 시기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합의들이 탄생하고 북남사이에서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미국은 직접 코코에 간섭하고 품들어 길러낸 친미주자들을 앞세워 음으로양으로 집요하게 훼방하였으며 각종 명목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정세의 의도적으로 격화시켜왔다. 저들의 패권전략실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희생시키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침략과 간섭책동이야말로 장기화되고있는 민족분열의 근원이다.

미국이 진실로 북남대화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면 내외가 보는 앞에서 공화국의 겨울철올림픽참가를 악랄하게 시비질하고 대회준비에 눈코볼새 없는 남조선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을 련속 불러들여 닥달질해댈 필요가 없을것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며 통일로 나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며 북과 남이 계속 적대시하고 동족끼리 싸우기를 바라고있다. 그래야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저들의 군사적지배를 강화하고 아시아와 세계 패권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할수 있기때문이다.

조선반도에 평화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북침행 전쟁의 명분이 사라지고 아시아체패전략실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는데로 부터 북과 남을 영원히 대결하게 만들고 이 땅에 항시적인 정세긴장을 조장하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속심이다.

현실은 미국의 불순한 기도와 간섭책동이 지속되는 한 북남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올림픽경기대회에 신성한 평화의 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봉화를 지피려고 발광하는 미국은 평화의 적, 인류의 적이다.

김은철

평화를 우롱하는 호전광들

새해에 들어와 조성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자 최근 미국이 불편한 속내를 더이상 감추지 못하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있다.

미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나는 즉시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것이라고 하면서 부산을 퍼워대고있는것이 그 실례이다.

지난 1월 25일 미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및 정책국 국방 맥켄지는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훈련은 올림픽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할것일뿐이고 올림픽이후에는 즉각 재개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 다음날에는 미국방성 대변인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대리대사가 《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은 즉시 시작될것》이라고 췌치였다.

이에 발 맞추어 남조선 국방부도 대변인을 내세워 평창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장애자올림픽경기대회이후 미국과의 련합군사훈련을 정상대로 실시할것이라는 립장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이후

로 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한것은 결코 그 누구에게 선심을 베풀것이 아니다.

미국의 막대한 병력과 핵타격수단을 비롯한 첨단군사장비들이 동원되어 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를 퍼워올리며 위험천만한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조선반도환경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올림픽경기가 바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하기에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강행하려는 군사연습은 남조선 각계층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왔다.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은 그에 못이겨 취한 조치로서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그자체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범죄라는것을 미국도 시인한것으로 된다.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조성되었던 정세완화국면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소동때문에 파탄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북남사이에서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전진장이 형성되던 때에 미국은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는 등 심술כות은 망동을 부려댔고 북침전쟁연습을 비롯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을 일삼으며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 온 민족의 통일열망을 무참히 란도질하였다.

이전에 미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합동군사연습 재개에 대하여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우롱하고 북남관계개선흐름에도 훼방을

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남조선의 큰 대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고있다.

그런데 오히려 남조선군부 수장이라는자의 입에서 이처럼 대책없는 대결악담이 튀어나오고있으니 그야말로 현실도, 대세도 미처 가려볼줄 모르는 얼간망둥이의 가스로운 객기가 아닐수 없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공화국 핵억제력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는 무지한자의 그러한 녀두리는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미국의 악랄한 북침전쟁책동에 추종하는 친미대결광의 무모한 망동이다.

이러한 친미대결광들의 망동은 남조선에서 있게 될 올림픽의 평화정신을 심히 우롱하는것이이며 이력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라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조선반도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과국상태에 돌들어갈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지게 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요구에 의해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북침전쟁연습재개와 같은것으로 찬물을 끼얹는 무모하고 미련한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서희

남조선의 민중당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당 룡산군 지역위원회가 1월 25일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가로막는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관계개선에 검은 재를 뿌리며 한사코 시비질을 하고 방해공작을 벌리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주변에 특수작전부대와 전락무기들을 끌어들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시험을 강행하려는 음모임을 보이면서 군사적긴장

을 고조시키고있다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간의 합의를 사사건건 시비하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온 민족이 녀원하고 전 세계가 바라는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는 온갖 책동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평화와 통일로 힘차게 나아가는 민족의 위대한 발걸음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이 남조선에서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화해와 관계개선의 발걸음을 맞추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배척을 당하고있는 보수세력들은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갖은 비렬한 훼방질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올림픽무대가 《북의 체제전진장》으로 되고있다는 황당한 녀두리이다. 이에 남조선의 보수언론들도 합세하여 법석떠들어대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것은 남조선에서 열리는 경기대회를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여기고 성과적으로 개최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고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나가기려는 진지한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런 순수한 노력을 《체제전진》이라고 헐뜯어대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평화와 관계개선을 지향해나가는것을 바라지 않는자들의 속이 뒤틀

린 너절한 잡소리들이라 해야 할것이다.

올림픽경기대회는 국제적인 대규모체육회합이며 공화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성원국이다.

지난 시기 공화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많은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였다. 하다면 공화국이 참가한 경기를 주최한 나라들도 모두 공화국의 《체제전진장》으로 되겠다는것인데 말이 되는가. 응원단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체육경기무대에 자기 나라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도 보내는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심리이고 관례이다. 인기있는 세계축구선수권대회만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와 기차, 배를 타고 경기개최국에 가서 자기 나라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남조선에서 진행될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도 많은 나라의 응원단들이 참가하게 될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나라들이 평창올림픽을 자기의 《체제전진장》

동족대결분자들의 낯 뜨거운 추태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북과 남이 협의추진하고있는 문제들을 계속 사사건건 악랄하게 시비하며 헐뜯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 《한국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당국이 북남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 등에서 일정보의 제, 발언권을 모두 북에 내주었다. 공동보도문들에도 남측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문제들은 다 빠지고 북이 주도하는 내용들만 반영되었다. 북의 신년사를 그대로 옮겨베끼었거나 다름없다고 악담질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모자라 보수세력들은 마식령스키장공동훈련을 합의한데 대해서는 20년간 올림픽을 준비해온 평창주민들의 노력이 외면당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은 북의 대표적인 체제선전장이다.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동훈련을 하겠다고 어이없다고 속속 부라진 수작들을 늘어놓

으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하였다. 한편 녀자빙상호케이단 일팀구성과 북남공동입장 및 통일기사용, 예술단과 견을 위한 공화국대표단의 현지료해를 두고서는 《반미자주, 친북련공을 노리는 북의 전략》에 달려드는 것이다. 북핵을 묵인한다는 메세지가 될수 있다.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있다. 고 하면서 폐대를 둔구다 못해 보수단체우익단체들을 비롯하여 서울한복판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기를 불태우는 치명리는 특대형대결망동까지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추진하는 문제들을 사사건건 걸고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추태는 그야말로 장관바닥에서도 모로 기는 못된 버리지처럼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따지고보면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공화국이 새

해를 맞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무슨 《체제선전》과 《제재 회피》를 위한것이라는 따위의 나발을 불어대며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대결악담질만 해왔다. 이런자들이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하여 북과 남이 협의추진하고있는 문제들을 사사건건 헐뜯어대다 못해 최근에는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공화국기까지 모독하는 더 이상 참을수 없는 만행까지 서슴없이 감행한것은 민족반역자들의 동족대결광기가 이미 도수를 넘어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피를 물고 발광하는것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되어 운명의 막바지에 이른 처지로 볼 때 북남관계개선이 그야말로 저들의 마지막숨통을 조이는 무서운 울가미로 되 기때문이다. 미국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나갈수 없는 보수세력들의 사대매국적인 동

족대결망동때문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위업달성에도 엄청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것이다.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제명을 다 산 송장같은 보수세력들이 아무리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놀려대며 여론을 오도하려 해도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리명박, 박근혜보수 《정권》 9년간 역경기 그지없는 반역무리들의 추악한 본색을 꿰뚫어볼대로 본 남조선민심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조선민족내부에 더이상 살려둘수 없는 천하역적무리가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다. 민심의 저주와 규탄만을 받는 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종말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고 부질없는 광란을 당장 걸어서 치우고 민족앞에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심판을 받거나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김 현 일

망조가 든 보수세력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세력들의 추악한 개싸움질이 만사람의 웃음거리로 되고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당혁신 문제》와 6월 《지방자치제선거》 후 보추천권문제를 둘러싸고 《홍준표파》와 《친박연표파》 등 파벌들 사이에 치열한 개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자리를 차지하고있는 홍준표는 《박근혜흔적지우기》를 전면에 내걸고 《당지도부》에서 《친박》세력을 밀어내고있다. 이를 두고 《친박》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후보추천권을 위한 독식행위》,

《친박청산을 통한 홍준표사당화》라고 하면서 《그냥 못지나간다》, 《집단탈당도 불사하겠다》고 피대를 돌리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패거리들과 《바른정당》 것들은 저저마다 《보수의 정체성》을 떠들어대며 끝이 없는 개싸움을 벌이고 있다. 류승민패들이 《국민의 당》의 안철수패거리들과 통합하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밀릴수 있다는 여론까지 확산되고있어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떨거지들은 더욱 신경이 곤두서서 《바른정당패거리》에 혈안이 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패들이 내들고있는 《신보수》와 《바른정당》의 류승민패들이 떠들고있는 《개혁보수》 간의 싸움은

결국 상대를 부정하고 매장시켜 살구멍을 열어보려는 나전투구이다. 늘 개와 고양이처럼 물고 핏물을 핥는것들인리라 별로 새삼스러운것은 아니지만 검정개 돼지 흥 본다고 꼭 같고같은 음모군, 정치시정배들이 서로 물고뜯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보수세력들의 싸움질은 이뿐이 아니다. 홍준표와 류승민이 저저마다 《보수세력의 책임》을 박근혜에게 밀어던지는데 분격한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단체 떨거지들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것들을 《배신자집단》, 《역적배》, 《은혜도 모르는 시정배무리》라고 하면서 이를 갈고있다. 예로부터 망해가는 집안에 싸움 그칠 날이 없

다고 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파멸의 낭떠러지로 정신없이 곤두박질하는 속에서도 저마끔 어떻게 하나 살아보려고 발버둥질하면서 멸망을 더욱 촉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사이비정당의 피할수 없는 숙명

얼마전 남조선의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들에 대한 집단징계에 나섰다. 하여 현역의원 16명을 포함한 179명이 징계대상이 되었다. 한편 안철수는 당내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 대표 류승민과 《중도보수통합선언문》이라는것을 발표하고 통합을 위한

《〈국민의 당〉 임시전당대회》를 기어이 강행하려 하고있다. 이에 맞대응하여 《국민의 당》의 통합반대파들이 《민주평화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창당결의대회와 발기인대회를 신속히 조직한데 이어 오는 5일과 6일 집단탈당과 창당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 당》이 완전히 깨지는것은 시

간문제로 되었다. 《국민의 당》이 완전히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된것은 《새 정치》로 위장한 정치시정배인 안철수를 대표로 내세운 사이비정당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권력에 환장이 된 추물은 아무리 치장하여도 그 본색을 절대로 감출수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남의 잔치집에 칼을 품고 찾아가려는 아베

공화국의 애국 애족의 대우당과 주동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얼어붙었던 북남관계가 개선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조선반도에서 화해의 훈풍이 불고있는데 대해 지금 내외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있다. 특히 공화국선수단을 비롯한 대규모사절단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파견은 민족애, 겨레사랑을 담아 남조선에 보내는 새해선물이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고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에서도 조선반도정세에서의 극적인 변화에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대사를 그라 크리려는 섬나라 극우세력들의 망동이 도수를 넘고있어 내외를 경악시키고있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 참가문제를 놓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던 일본 수상 아베가 얼마전 기자회견과 국회연설을 통하여 참가할 결심을 공개하였다.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

대회참가문제를 놓고 이 피탈, 저 피탈하며 남조선당국을 회롱하던 아베 단진네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있다.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과 대범한 아량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자 일본반동들은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행태에 나서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의미있는 대화의 길이 있다》, 《대북강경메세지를 북에 제대로 전하는 대화가 되기를 바란다》, 《북남대화에 관계없이 국제적공조에 의한 기존의 대북압박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 등의 속 뒤틀린 악담들을 련이어 날아왔다. 아베패당은 남조선당국을 향해 남북관계개선보다 제재,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현해탄너머에서 압을 가하는것도 부추하여 이제는 직접 현지에 게바라와서까지 북남대화분위기를 찬물을 끼얹고 올림픽마당을 동족대결마당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실지로 아베는 이번에 개막식에 참가하여 남조선집권자에게 《북에 대한 압박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는 원칙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과 남조선당국의 《대북인도주의적지원재결정설을 통하여 참가할 결심을 공개하였다》는데 대해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불순한 속심을 드러냈다. 아베의 올림픽개막식참가는 그를 끌어들이 남조선당국을 《대북제재》강화와 《한》미일공조라는 쇠사슬에 단단히 얽매어 놓으려는 미국상전의 훈령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아베일당이 저들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가 그 무슨 큰 선심을 베푸는것으로 되는듯이 놀아대면서 남조선당국이 일본근성노에 《합의》를 리행하도록 강박하려들것도 뻔한 일이다. 남의 집 경사에 축하의 꽃다발은커녕 독기서린 칼을 품고 찾아가려는 아베일당의 망동이야말로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없는 섬나라 족속들의 후안무치한 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지난날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강요한 범죄국가이다. 우리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70년이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있는 데도 일본의 책임과 죄가 크다. 그런데도 반성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업에 계속 훼방을 놓아내고있으니 갈수록 죄만 덧쌓고있는 일본이다. 아베일당이 지금처럼 계속 못되게 놀아낼수록 일본에 차체질것은 우리 겨레의 대일증오심의 증대이고 섬나라의 비참한 운명뿐이다. 리 어 금

명악이라는것을 폭로하였다. 이로써 10여년동안 가리워져있던 다스회사의 실제소유자가 다름아닌 리명박역도라는것이 더는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되고있다. 어둠속에 감추어져있던 리명박역도의 죄상이 드러난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남조선검찰은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을 비롯한 역도의 핵심측근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벌려 리명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관련진술들을 받아내었다. 이런 속에 얼마전 리명박 《정부》의 한 핵심인물이 언론에 나서서 《이번 검찰수사라는것이 립증될수 있겠다》, 《다스가 리명박의것이라고 알고있는 판계자가 너무 많기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어려울것이다》, 《리명박이 다스를 잃으면 모 든것을 다 잃을것이다》고 하면서 다스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다름아닌 리

성이 높다고 평하고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과 시민사회각계는 리명박은 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사과해야 한다, 리명박의 부패범죄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도적은 우두머리부터 잡아치워야 한다 고 하면서 리명박을 하루속히 감옥에 처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리명박역도의 특대형부정 부패혐의에 대해 모르쇠

이를 하며 발악하는것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렁이고 모독이다. 가관은 리명박에 대한 응당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걸고들며 비호두둔하는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망동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가 2007년 《대통령》 선거당시 《BBK주가조작 사건》을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역도의 집권시기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대표직을 차지하고 수십여개의 각종 《MB악법》 통과에 돌격대

뺨에 걸린 큰쥐와 작은쥐들

활동비》를 청와대에 섬겨바치고 리명박역도와 나전네가 이를 탕진한 사실에 대해 관련진술을 받아냈다. 그런가하면 리명박의 소유물인 《영포빌딩》의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역도의 집권시기 마련된 17상자분의 청와대문서들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리명박과 수사 줄개들은 당황망조해하면서 한쪽으로는 《실수와 착오로 이사하면서 넘어 온것 같다》,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지도,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아닌보살하고있다. 지금 남조선검찰은 이 문서들이 외부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니면 일반문서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법적대응을 취하겠다고 떠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역도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이후에 구속될 가능

로 일관하는가 하면 저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려세우기 위해 《정치보복》을 떠들다 못해 케케묵은 《색갈론》까지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취창에 걸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짹짹거리 는 큰쥐와 작은쥐들의 한갓 비명소리에 불과하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라고 사실상 리명박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즉시 감옥으로 직행했어야 할 특등범죄자이다. 이런자가 저와 같고 같은 박근혜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그 그늘밑에서 지금까지 편안히 살아온 것 자체가 비극이다.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범죄를 눈 한번 깜빡함이 없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왕초가 덜미를 잡히게 된것은 필연이다. 역도가 제놈의 범죄증거가 날날이 드러난 지금도 스스로 범죄를 시인하고 쇠고랑을 찰 대신 아닌보살하며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심복들과 궁궁

로 나섬으로써 《여당군기반장》, 《홍반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리명박집권시기 벌어진 《국정원정치개입사건》, 싸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 보수단체불법지원사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 등은 역도 혼자 저지른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함께 감행한 부정부패사건들로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리명박이 감옥행을 안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박근혜의 영방에 갈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아울러 홍준표와 그의 사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아무리 역도의 부패범죄를 두둔하고 《색갈론》소동으로 저들에게 쏘리는 비난여론을 피해보려 하지만 적폐청산의 대상인 인간오물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공화국의 우월한 보건제도

2016년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에서는 공화국의 보건성에 보건부문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공화국의 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성원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질병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려는 인류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15년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현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의 유족한 생활을 담보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지속개발목표들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서 설정된 17가지의 기본목표에서 보건 부문이 3번째에 속한 것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민건강봉사체계의 확립과 말단단위에서의 보건일꾼수가 적은 것이 이러한 지속개발목표

달성에서 난문제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적지 않은 나라들의 보건부문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공화국의 보건제도에 돌려지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일찌기 지난 세기 50년대초에 벌써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다. 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는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외진 두메산골과 어촌 마을에 이르기까지 무상치료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게 되었다.

공화국에서는 의사담당 구역제에 따라 호당당의 사들이 선정되어 담당세대들에 대한 예방치료와 위생선전, 집중사업 등의료봉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기에 2016년 9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 지역 총회 제69차회의에서는 보건부문 지속개발목표리행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공화국이 지역적으로 제일 앞선 나라로 높이 평가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2017년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0차회의 전원회의에서도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조선에서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영양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으며 그들이 국가적인 건강보호혜택을 정상적으로 받고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할만한 일이다.》

《인민을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에 떠받들리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병원들이 문수지구에 일떠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선차적인 힘을 돌리고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구상에서 치료비없이 생명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은 바로 조선이다.》

... 공화국의 우월한 보건제도는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삶을 누리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류경치교병원에서

우리 식의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개발된 국가의 통일적인 시험체계이다.

이 체계는 시험조직운영체계와 문제자료기지, 컴퓨터와 망, 프로그램을 구성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는 국내교육현실에 맞게 개발한 시험체계이다.

문제자료기지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국가적인 범위에서 원격으로 진행하는 모든 시험, 경영들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시험대상별, 교종별에 따르는 80여개 학과목별로 문제들이 구축되어있고 연구개발한 여러가지 문제형식들이 갖추어져 있다.

한해 시험을 위해 수천 문제를 출제하자면 14만여 문제가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볼 때 문제자료기지에 구축되어있는 자료의 방대함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전국 모든 도서관들과 대학, 학교들의 다기능화된 교실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원격시험망을 형성하고 각급 봉사기들과 수많은 말단컴퓨터들을 리용하여

전국적인 화상회의도 할 수 있게 한 이 원격시험체계야말로 자랑할만한 것이다.

시험문제를 자동출제하고 여러 과목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기능과 과목별, 문제별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고숙화된 채점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원격시험의 모든 단계와 공정들을 반영하는 10여개의 프로그램이 갖추어져있는 이 체계를 완성하는데 얼마만 한 품이 들었는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나라의 교육발전, 인재강국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입학원격시험체계를 훌륭히 개발완성한 재능있는 인재들의 높은 실력도 감탄할 만 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성과를 낳게 한 중요한 인인이 있다.

나라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하는 실력평가방법, 국가의 통일적인 교육평가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시장경제에 복종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한갖 꿈에 불과하다.

교육위원회 원격시험연구소의 일꾼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훌륭한 교육정책이 있고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체계가 있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가 안아온 성과이다.

장금란 원격시험연구소장은 지난 기간 여러 나라들의 시험운영방법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

어느 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주최하는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대학입학시험 운영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상업화된 하나의 돈벌이공간이라는 것이었다.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험생이 기본비용외에도 매 과목당 돈을 내는 것은 물론 입학하려고 신청했던 대학을 다른 대학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도 돈을 내야 하고 다른 나라의 수험생은 자국내의 수험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입학시험 전과정이 돈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놓고 공화국의 사회주의무료교육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행복한 현실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는 속에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편견없이 들여다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글은 로씨야의 한 방송이 제작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영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가 각국의 시청자들속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있는 데 대해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최근 조선을 방문한 사람들은 서방언론들의 선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고 놀라움과 감탄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백지장처럼 특별한 성품을 지닌 인민이다.

서로 돕고 이끌며 모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속에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사회,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민이다.

그들은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는 조건에서도 언제나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 어떤 불안이나 동요, 근심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웃음에서 매일에 대한 락관을 느낄 수 있다.

그 웃음은 매우 순결하고 꾸며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 무엇이든 다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진리를 체득하였다.

오랜 세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으며 아직까지도 전쟁위협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은 정말이

지 놀라울 정도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해나가고 있다.

지금 조선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시간이 다르게 화려한 거리들이 계속 일떠서고 있으며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호화롭다고박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고있으며 계획경제의 위력이 최대로 발양되고 있다.

조선의 현실에서 농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조선사람 그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여도 모두가 첫마디부터 자기 정도자에 대한 흠모심과 고마움을 토로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결의를 펴 력하는 것이다.

서방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허나 조선에 가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강그리 바치셨고 오늘은 또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인민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계신다.

흠뻑지는 계속하여 체스코의 한 신문이 《명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서방의 정치인들은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하지만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계신다. 조선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다.》라고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리 철 민



은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기와 더불어 평양의 광복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체육인상점이 찾아오는 많은 체육인들과 체육애호가들로 흥성이고 있다.

김명필지배인은 체육인상점의 1층에 꾸려진 체육용품매대로 우리를 이끌었다.

인기를 끄는 갖가지 체육용품들

1층에서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요구되는 체육용품들을 편리하게 고를 수 있도록 운동종목에 따라 체육용품들을 진열해 놓고 봉사하고 있었다.

실례로 손님이 탁구에 호가라면 탁구와 관련된 체육용품들이 진열된 매대에서 요구되는 상품을 봉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리수경봉사원은 《우리 상점을 찾는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체육용품들을 자기의 기호에 따라 고를 수 있어 누구나 좋아하는 다.》고 말하였다. 매대

에 진열된 체육인들을 위한 영양식품들과 기능성 음료들도 눈길을 끌었다.

체육인상점의 2층에는 운동복주문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체육인들과 애호가들, 여러 단위에서 주문하는 운동복들을 제작해주고 있었다.

상점을 돌아볼수록 더욱 마음 호뭇하게 해주는 것은 어느 매대애나 국내의 원료와 자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체육기 자재들이 그득히 쌓여있는 것이었다.

평양교원대학의 한 대

학생은 배구공, 축구공, 탁구화, 롱구화를 비롯하여 우리 상표를 단 질 좋고 다종다양한 체육용품들이 많아 정말 좋다고 하면서 사용해보니 우리의 체육용품들이 다른 나라의 것 에 못지않다고 신이 나서 이야기하였다.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의 기호에 맞게 만든 질 좋고 보기에 좋은 체육인방이며 각종 운동신발들도 인기를 끌고 있었다.

김명필지배인은 체육인상점을 찾는 체육인들과 애호가들이 늘어나고있다고 하면서 각종 체육용품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더 잘하여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해 갈 결의를 펴 력하였다.

본사기자 강 류 성



본사기자 황 금 숙



밖에서는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곳 문수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하러 오는 인파가 끊기지 않고있다. 1년은 사계절이지만 언제나 여름처럼 훈훈하고 겨울을 모르는 문수물놀이장이다.

해안관광활동에 유리한 원산갈마지구

새해에 들어와 공화국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해안관광지로는 하루 해비침률, 해비침시간과 함께 하루평균기온이 18~20℃인 날자수, 바람이 거의 없거나 약한 날자수, 바다기승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안관광활동(해수욕과 일광욕, 공기욕, 낚시질, 뱃타기, 보트타기, 발동선타기, 파도타기, 잠수관광 등)에 유리한 지역이 선정되어 개발이용된다.

특히 바다기승에 백사장이 펼쳐진 지역은 해안관광활동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러한 지역들을 해안관광지로 적극 개발하고있다.

세계적인 자연관광지들 가운데서 해안관광지의 비중은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을뿐 아니라 여름철관광객의 대부분이 해안관광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바다가지역의 명승지로 이름난 송도원과 시중호, 마

진, 룡수포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해안관광지들로 이용되고있으며 올해에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건설되게 된다.

원산갈마지구는 해안관광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원산반도남부에 있는 갈마반도는 오랜 세월 남대천(안변)의 흐름과정에서 생긴 화강암질의 모래가 바다물결의 작용에 의해 쌓인 룡계도로써 남북으로 놓여있는 반도의 북부는 기복이 심하지 않은 낮은 구릉으로 되어있으며 전반적으로 해안선이 밋밋하다.

갈마반도의 북쪽에는 길게 마주 뻗어나온 호도반도가 있으며 그 사이에 신도, 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놓여있어 원산항의 자연방파제로 되고있다.

갈마반도에 이름난 명승지인 명사십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는 동해안지역에서 보기 드문 모감주나무가 있으며 백사장에 는 해당화가 무리져 자라고있다.

바다기승을 따라 십리나 펼쳐진 모래밭에 붉게 핀 해당화와 키높이 자란 주변의 소나무, 맑고 푸른 동해의 물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이 지역의 경치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현대적인 갈마비행장이 이미 건설되어있는 이곳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건설되면 국내외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관광객수요원천지(주민지) 및 관광지들과 원산—금

강산국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중간체류장소로서의 사명도 수행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진행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은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우리 나라의 관광업을 세계적수준에 올려 세우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다.

평양관광대학 학부장 박사 부교수 채 재 득

국가민물질문화유산

민족의 전통음료 — 송농

송농은 오래전부터 우리 겨레가 즐겨 마셔온 독특한 음료의 하나로서 밥을 지어내고 남은 가마치에 물을 두고 끓인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음식을 다 먹고난 다음 송농으로 입가심하는것을 하나의 풍습으로 여겨왔다.

또한 끼니때마다 밥을 거더다 먹고 몇순가락정도 남았을 때 그것을 따

끈한 송농에 말아 마른 반찬이나 짭짤한 장절임, 젓갈 등을 반쳐 먹는것을 좋아하였다.

지난날 가정들에서는 가정주부들이 식사후 옷사람들에게 송농을 드리 는것을 하나의 식사법절로 지켜왔다.

시부모나 옷사람이 식사를 끝냈을 때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머느리가 송농을 드리

고 꿀을 맺는 풍습이 있었다.

송농마시는 풍습이 우리 겨레의 생활속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내려오면서 그와 관련한 성구, 속담들도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그가운데는 《급하기는 우물에 가 송농 찾겠다》, 《보리밭에 가 송농 찾겠다》, 《송농에 물란 맛》 등이 있다.

본사기자

술가락과 저가락을 함께 사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고유의 관습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 바이올린연주가자는 일찌기 《젤러서 먹는 공격적인 포크에 비해 다치지 않게 집는 평화적인 저가락사용의 발견이 나의 음악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고 말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저가락으로 김치를 집기도 하고 깨일절임을 한장씩 떼어내기도 하며 도토리묵이나 콩장도 집어먹을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저가락사용은 음식을 먹을 때서 매우 위생문화적이고 편리하다.

저가락사용은 두뇌를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저가락사용이 두뇌발달에 좋다는것은 이미 학계에서도 공인된 사실이다.

저가락질을 하면 64개의 근육과 30여개의 관절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므로 대뇌에 좋은 영향을 주며 늙은이들의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남의것은 다 좋은줄 아느냐》

어느 마을에 남의 집 김치만 좋다고 하고 제 집 김치면 입에 대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다.

《어머니, 색깔만 낸다고 김치인줄 아요. 쟁하고 입맛이 돌아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생각끝에 한마디 하였다.

《그럼 이웃집 김치를 좀 달래오겠 해요.》

《남의것은 다 좋아. 그럼 이 김치를 늘 얻어다 너에게 주마.》

《정말이에요?》

《정말 아니구. 밥이나 많이 먹어라. 부엌에 뒤둑 가득 담그 어놓았으니.》

《아니 그럼?...》

단편소설

여 울 물 소리 (7)

글 현 명 수, 그림 박 봉 혁

노여움에서 자기 연구에 대한 긍지로 그리고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 뻗어 가던 유진의 상상력이 고향의 수성천가에 닿은것이였다. 하얀 조약돌, 사각거리는 걸음소리, 재잘거리는 여울물소리, 흰 거품, 흘러가는 종이배... 유진은 상상속에서 고향의 작은 버들치를 다시 보았다.

유진은 최윤걸을 기다렸다. 그는 유진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였다.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갔다. 최윤걸은 예정된 날자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곧장 유진에게로 달려왔다. 고마웠다.

하지만 그가 날라온 소식은 유진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뜨렸다. 조국에서는 이미 기동형 사과나무에 대한 자기 식의 새로운 조직배양기술

을 완성하였고 5cm크기의 조직배양묘를 어느 한 과수농장에 도입하여 너달만에 80cm까지 키워 접 눈까지 불임으로써 묘목을 생산할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던것이다.

그 연구집단의 책임자 유진은 상상속에서 고향의 작은 버들치를 다시 보았다!

...유진은 눈을 뜨기조차 싫었다. 창가림을 한 방안은 어둡시곤하였고 막 희망의 불꽃이였다.

유진은 평온이 오기를 기다렸다. 모든 시름과 걱정을 잊고 망각의 그 세계로 빨리 가고만싶었다. 이승에 대한 미련은 한가닥도 남지 않았다. 만사가 귀찮아졌다.

침대에서 숙향이 한숨을 푹푹 내쉬고있었다.

최윤걸의 귀국에 잇닿은 뜻밖의 충격은 유진의 심장병을 악화시킨것이였다. 벌써 병원생활을 시작하기도 닷새가 지나가고있었다. 짐작대에 매달린 액체가 한방울한방울 유진의 혈관속으로 흘러 들고있었다. 그러거나말거나 유진은 까딱없이 누워만 있었다. 눈조차 뜨는 일이 없었다. 눈시울을 밀어올릴 기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삶의 의욕을 잃은 늙은이의 자포자기였다.

갑자기 곁에서 숙향이 애써 소리를 죽여가며 호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다. 일생을 해로하며 함께 살아온 한녀인이 울고있는것이다. 가련한 평강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울고있는것이다. (아아, 나는 어찌하여

이렇듯 가련해졌는가!) 가련한 인생! 사는것이 죽는것보다 못한 인생! 이제 저리바닥에 나딩구는 쓰레기처럼 하등의 쓸모도 없이 된 깽깽 말라빠진 육체... 눈을 떠 하늘을 보면 무얼 하고 발로 땅을 짚고 서면 어쨌단 말인가. 이미 넓은 지옥에 나떨어졌고 남은것은 병약한 몸



똥이뿐인걸... 인생을 이미 포기한 그였기에 숙향의 울음소리도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주사를 놓겠다고 간호부가 소매를 걷어올리

고 피줄이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해 마른 팔뚝을 비끄러낼 때도 맥없이 죽어 버렸었다. 때로 숙향이 그의 가슴을 흔들어보았으나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진한 속에서도 최의식은 유진의 가슴을 허비고있었다. (아아, 나때문에 불행해

리의 기도를 외면했구려. 숙향, 불쌍한 나의 녀인이여!)

그때 문소리가 났다. 유진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 소리는 그에게 아무런련상도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였다. 다만 호느끼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슴이 쥐여 비틀리는것만 같았을뿐이다.

《선생님!...》

나직이 울리는 소리였다. 마치도 깊은 잠에 든 사람을 깨우려는듯 조심스럽게 울리는 부름소리였다.

(윤걸선생이 왔구나! 고마운분이다. 정말 그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죽어가는 이 몸이 그에게 무슨 감사할 모습으로 그의 마음만을 상하게 할뿐이다. 한테도 그는 나를 찾아오다니...)

《선생님이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까?》

(저 목소리는?... 귀에

설구나. 누굴까? 누가 나를 찾아왔을까?)

《아니예요. 의사들의 의식은 돌아왔을거라고 해요. 단지 기력이 없어서인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뜨지 않는군요. 평강님이 이전 세상을 떠나려는가봐요...》

숙향은 더욱 쉽게 흐느끼었다.

《선생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격정스레 찾는 윤걸의 목소리였다.

《누가 왔는가 보세요. 대사관에서 박인철참사신생도 오셨어요.》

(오, 박인철. 그였구나. 박석진의 아들! 분명 나의 연구때문일거다. 그에게 모든걸 설명해야지. 그런데 좋은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죽어가는 이 몸이 그에게 무슨 감사할 모습으로 그의 마음만을 상하게 할뿐이다. 한테도 그는 나를 찾아오다니...)

《선생님이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까?》

(저 목소리는?... 귀에